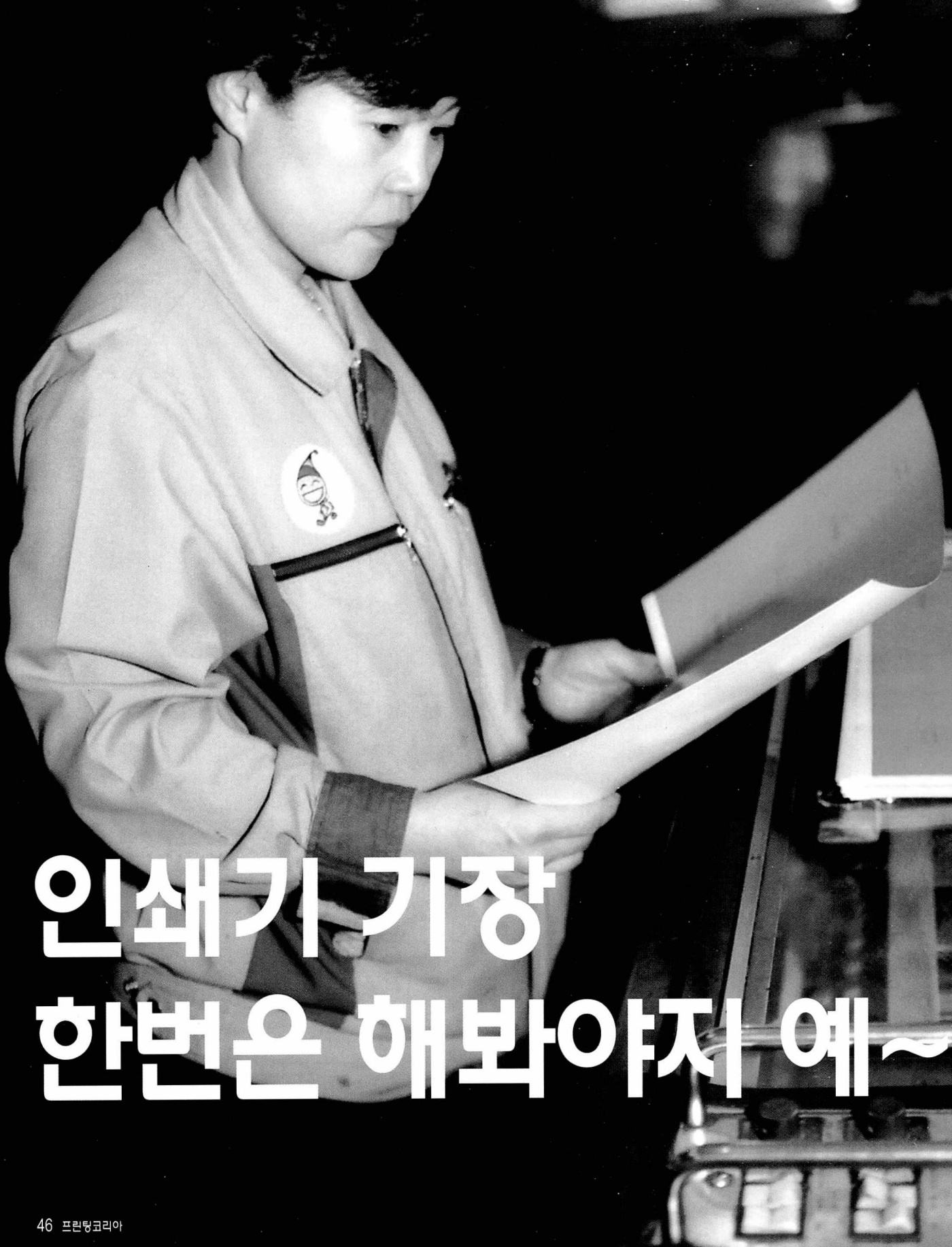


반갑습니다 - 육군 인쇄창 유향옥 부기장



인쇄기 기장 한번은 해봐야지 예~

여성 기관차 운전사, 여성 육·해·공군 사관생도.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은 인정하지 않는다'란 모 통신업체 광고의 문구처럼 바야흐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봇물 터지듯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교적 관념이 사회에 적잖은 영향을 행사하는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매우 이례적이라 할 만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처럼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하다고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아직도 여성의 사회 진출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며, 특히 기계를 직접 다루는 인쇄 현장의 경우 국내에선 그 진출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이제 금녀의 구역으로 여겨지다시피 하던 국내 인쇄생산분야도 여성에게 그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음을 알려야 할 것 같다. 보이지 않는 벽을 헐고 있는 위풍 당당한 그녀는 육군 인쇄창에 근무하고 있는 유향옥(47) 부기장이다.

타자수로 인연 맺어 인쇄기 부기장까지

넠따란 공장에 요란스럽게 돌아가는 인쇄기 소리. 154cm의 자그마한 체형, 파마머리에 유일하게 화장한 얼굴. 일행들 속에서 그녀를 찾아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녀와의 첫 대면은 '저 조그맣고 곱살스러워 보이는 아줌마가 설마' 하는 의아심으로 시작됐다.

인문계 여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평범한 그녀가 군대와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77년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유 부기장은 60년 어려운 시절에도 청렴결백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경찰공무원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대학 진학의 꿈을 접고, 학원에서 타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이후 77년 3월 보조 타자수로 당시 부산에 있던 지금의 부대와 잠시 인연을 맺어 77년 4월 신문에 난 군무원 공개채용 공고를 보고 여기에 응시, 77년 9월 1일부터 정식군무원으로서 군대와 인쇄를 접하게 된다.

환관으로 인쇄를 하던 시절, 그녀가 처음으로 맡은 역할은 인쇄기계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분야로 필요한 글자를 찾아서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원고작성 당시만 해도 현장 인쇄기와 그녀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아니 그녀의 천성적인 부지런함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현장 인쇄기와 인연을 맺지 않아도 될 수 있었다. 4년여 동안의 원고작성 생활을 하면서 그녀는 무언가에 도전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깐 공부를 해두자는 심정으로 선택한 것이 인쇄와 관련된 각종 자격증 시험. 그렇게 시작한 공부로 그녀는 80년에 인쇄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이후 87년 제판기능사 자격증을 획득해 인쇄와 직 간접적으로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99년엔 인쇄기사와 제판기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인쇄 현장 투입은 2000년 5월 1일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디지털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여성도 현장 인력으로 투입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지휘관의 방침이 정해졌고, 이에 그때까지 원

고작성 분야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가, 지휘관의 의도에 선뜻 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유 부기장이 맡고 있는 2도 오프셋 인쇄기는 2인 1조가 되어 움직인다. 여성이라고 해서 게을리 할 수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인쇄일이라 피를 부릴 경우,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어 지기 때문에 요령이란 있을 수가 없다. 현장인력으로 투입된 3년여 동안의 경험 때문인지 색감을 보기 위해 인쇄물을 빼내는 손놀림이나 적재된 인쇄물을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것까지 남자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래도 힘든 것만은 어쩔 수 없어 하는 것 같았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도전하고 싶어하는 바람이 신체의 피로까지 가져가지는 못하는 탓이다.

며느리, 아내, 엄마, 학생, 군무원 5가지 역할

역척스런 그녀의 일과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종교 의식과 함께 시작된다. 이후 6시 30분까지 아침 식사 준비가 이어지고 건설 감리인 남편 김윤선(48)씨의 출근과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등교준비가 끝나면 7시. 간단한 출근준비를 하고, 7시 20분이면 어김없이 집을 나서 부대로 향한다.

부대에서는 부기장 역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점심시간엔 한자능력검증 3급의 실력을 살려 병사들에게 한자 교육을 시켜 한자자격증 습득 기여와 사병들에게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하며, 부대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도 도와주고 있다.

퇴근 시간 이후라고 그녀의 생활이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퇴근을 하고 나면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 7시에 저녁밥을 먹으러 들리는 아들의 식사를 해결하고 그녀가 들리는 곳은 학원. 정보처리기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함이다. 학원이 끝나고 나면 예배가 있는 날은 성당으로 향하고 다행히도(?) 예배가 없는 날은 집으로 돌아온다.

학원을 마치고 밤 11:30에 집으로 오면, 바쁘고 고된 일과로 인한 피로가 몰려오지만 마냥 잠을 청할 수는 없다.

고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하교가 밤 12시 즈음이기 때문에 아들의 야식까지 챙겨주고 나서야 비로소 잠을 청한다.

그래도 만며느리 역할이 조금은 가벼워진 지금의 사정은 많이 나아진 편이다. 부대가 부산에 있을 때는 결혼 후 부대 이전까지, 시부모님 모시면서 며느리 노릇까지 해야 했고, 부대 이전 이후에도 시어머니의 병간호 때문에 주말마다 부산까지 오가는 생활을 3년 간 해야 하였고, 그로 인해 99년 충효예 참모총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디지털 인쇄기 기장 한번 해 봐야지 예~

건장한 청년들도 꺼려하는 인쇄 현장분야에서 그녀가 버티는 것은 그녀 나름대로의 억척스러움과 그녀가 이루어야 할 꿈,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 주는 남편의 신뢰와, 류경상 부대장을 비롯한 부대원들의 따뜻한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황예연(50) 인쇄과장과 같이 인쇄기를 돌리고 있는 장중희(44)씨는 유 부기장에게 많은 힘이 되고 있다.

“고마운 사람들이죠. 제 의사를 존중해서 현장 인쇄분야에 있게 해 주신 부대장님도 고맙고, 또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있는 황 과장님도 고맙고요. 무엇보다 남자 동료를 받아들이면 더 편할 텐데 여성인 저를 동료로 받아준 장중희씨가 참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들다’는 유 부기장. 유 부기장이 다리의 피로를 덜기 위해 발목 보호대까지 착용하면서 현장에 애정을 가지는 이유는 그가 인쇄 현장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어찌됐든 현장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고생하는 만큼 인쇄인으로서 인쇄기 기장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여자라고 못할 이유 없잖아요.”

현장 인쇄기 기장이 되고 싶다는 유 부기장의 포부가 못 남성들에게 어찌던 당돌히 보일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자리를 찾고 싶을 뿐이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고 싶은 것처럼, 유향옥 부기장 역시 자신을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며 믿어주고 있는 가족들의 신뢰를 저 바리치 않기 위해서라도 현장 인쇄분야에서 최고라고 여겨지는 인쇄기 기장이 되고 싶은 것이다.

(이용우 기자)



◆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인쇄기 기장이 되고 싶다는 유향옥 부기장.

